

위기 학생 위해 나섰다... 의정부시초등학교의 '교육복지 어벤저스'

돌봄·학습 위기 학생 조기 발굴 학교·복지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 멘토링 등 통해 학교 적응 도와 "학교에도 내 편 있다" 믿음 전해

복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빈곤'이다. 그렇기에 교육복지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교는 다수의 평범한 학생과 소수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나뉘지 않는다. 아이들은 저마다 돌봄 공백, 정서 불안, 관계의 어려움, 학습 부진, 방임과 학대의 상처를 안은 채 학교에 온다.

어떤 학생은 체육대회 날 "같이 다닐 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조퇴를 쓰고 학교에 안 나오기도 한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성적표처럼 숫자로 남지 않지만 아이들의 삶에 오래 흔적을 남긴다.

의정부시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교로 선정돼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놓인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원하면서 "학교 안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해당교의 교육복지 프로그램과 성과를 소개한다.

의정부시초는 올해 전교생 403명 가운데 65명을 교육복지 우선지원학생으로 선정해 사례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 48명, 법정한부모 2명, 차상위 3명, 중위소득 60%이하 학생 11명이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 특수교육 대상학생 등도 있다.

해당 교는 교감, 교육복지부장, 교육복지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가 갖춰져 있다. 교사 혼자서 위기 학생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다.

교감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교육복지부장인 보건교사는 총괄을 맡고 있다. 담임 교사는 학급 모니터링과 생활교육을, 상담교사는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상담과 상담기관 연계를, 보건교사는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 의정부시초 교육복지실서 학생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3 상담반 의정부시초 교육복지사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건강상태 평가와 치료 기관 연계를 맡고 있다.

교육복지사는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며, 집중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을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를 통한 총체적 복지지원, 보편복지를 위한 교육복지실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도 담당하고 있다.

학교는 지난해 교육복지 상담과 학생면담 약 60건, 보호자 상담과 가정 방문 23건, 지역기관 연계 13건, 지역 자원 연계 4건 등을 진행했다. 위기집중사례 학생 6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을 이어갔다.

우선 웰드비전과 연계한 조식지원사업 '아침머교'를 운영하며 결식과 돌봄 공백이 있는 학생 10명에게 총 170회 아

침 식사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습 집중력 저하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오맘속'을 통해서 위생과 정결, 생활습관 형성도 함께 진행했다.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도 도왔다. 지역 대학생 5명이 학생 5명의 멘토가 되어 총 30회의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다.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대화와 놀이, 문화활동 등을 함께 수행하며 학생들의 정서적 지지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올해는 의정부시초 졸업생이 대학생이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와 후배들의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사회성과 또래관계 회복을 위한 '마음이 자라는 행복학교'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5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감정 이해, 의사소통, 협동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생활 적응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방학 중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가능동 초등문화탐험대', 심리검사 상담 연계를 지원하는 '우리 아이 마음 바로 알기'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초 교육복지실은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언제나 편하게 찾아와 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 알람 수업을 통해 교육복지실 역할과 지원 체계를 안내한다. 학급 내 갈등이나 정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급 개입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복합 위기에 놓인 학생이 조기 발굴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통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해가고 있다. 한 저학년 학생은 다문화·한부모 가

정 아동으로, 한글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다.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어 학교생활 적응이 쉽지 않았다. 애착 형성 시기 방임과 아동학대 경험도 있었고, 학교에서 정서 불안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의정부동 주민센터 사례관리팀과 연계한 공공부조와 기본 생활 지원,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양육 컨설팅을 진행했다. 학생의 특성과 학습 수준을 고려해 특수학급 배치 등 개별화 교육 지원도 이뤄졌다.

심리바우처와 재활바우처를 통한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했고,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놀이치료, 의정부가족센터 보호자 한국어교육 등도 지원했다.

특히 학생의 높은 공격성과 에너지를 건강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학교 인근 검도장 방과후 활동도 연계했다. 늦은 시간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던 문제는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해결했다.

주민센터, 복지관, 가족센터, 치료기관,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통합사례 회의를 통해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지원을 논의했다.

송다빈 의정부시초 교육복지사는 "8개 이상의 지역 자원을 연계해 학생 지원이 이뤄졌고 연간 10회 이상의 사례관리와 보호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담임교사, 학년부와의 협조적인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하고 사례 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복지사는 "교육복지란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 안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복지를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151개 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 구리남양주, 부천, 의정부 순으로 많다. 의정부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11개 학교가 사업학교로 지정돼 있다.

의정부시초는 그 중 한 곳이다. 해당교의 교육복지사는 지난해 의정부시로부터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헌신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남윤희 기자
일러스트=클립아트코리아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했습니다.



행복한노후를 위한 어르신과의 동행

다사랑주간보호센터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센터

어르신께 행복을 드립니다.

어르신의 행복,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자분들의 삶의 여유를 드리는

화성시 최대시설 다사랑주간보호센터입니다.

문의 : 031-232-0200
주소 : 경기 화성시 효행로 223 대원빌딩 5층

-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상담 가능
- 등급신청, 주간보호이용 등에 대한문의 가능
- 요양보호사사시모집

봉사하는 안경체인

IT's GLASSES

이츠글라시스 안경체인

|이츠글라시스 체인점| 가맹문의 010-2840-6388

수원점	031-268-8338	홍대점	031-292-0789
수원대점	031-235-2046	연신내점	031-372-7238
기성점	031-222-1017	오산점	031-372-7238
광교점	031-212-8415	송도점	070-7574-8470
세류점	031-221-3383	천천점	031-268-8338
병점	031-237-5696		